

기 획 연 재
공간환경이론과 연구동향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정준호

옥스포드대학 지리 및 환경학과 박사과정

“경제학자에게 실생활은 특별한 경우이다.”
(Amin & Thrift, 2000.)

1. 글을 시작하며

폴 크루그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예측했다고(?) 그런지 더욱 더 그의 한마디는 우리의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사무엘슨(Samuleson)이 지적한 것처럼, 그는 ‘금세기의 떠오르는 스타’이다(Samuleson, 1994, vii). 그는 너무나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쏟아낸다. 지적인 성실성이랄까 아니면 직업적 소명의식인지는 몰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것도 기존의 자기주장에 대한 반성을 거둬두고 있어 그의 논지를 일관성 있게 읽어내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 저명한 경제학자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학문분과인 경제지리학이 국제무역론과 마찬가지로 경제학내에서 중요한 하위분과학문으로 자리매

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rugman, 1991a, p.33).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국내에서는 이상하게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소위 유명학자의 이론체계를 거의 여과 없이 수입하는 국내학계의 현실에서 보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필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경제지리학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이고 또한 그의 주장이 경제학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일까?¹⁾

이 글은 크루그만이 왜 경제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연구성과를 스스로 '신경제지리학'이라고 일컫는 지에 대해 훑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비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비판적인 공간경제 연구자들에게 경제지리학 연구는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에 대해 필자의 논점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2. 크루그만의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 또는 지리경제학(geographical economics)

크루그만이 경제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리카아도의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무역이론을 수정하면서 무역(trade)과 일국 내 산업의 지리적 집중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당연하게도 그는 '경제학자의 기준'(Krugman, 1995, p.88.)을 염두에 두고 지리학내 경제지리학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따라서 그는 우아한(elegant) 경제수학적 모형에 기대고서, 베버의 공업입지론, 튀넨의 고립국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입지론, 사회 물리학(공간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중력 및 잠재력 모형), 누적적 인과, 토지이용 및 지대모형 그리고 국지적(local) 외부경제 등 '잊혀진 다섯 가지 경제지리학의 전통'을 복원하

1) 그의 작업이 초기에 동료 경제학자들에게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나는 경제지리학에 관한 현재의 연구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널의 논문 심사자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틀렸다고 말한다"(Gans & Shepherd, 1994, p.178에서 재인용).

고자 한다 (ibid.). 그는 최근에 경제 지리학자들이 수학적 모형에 기반한 이러한 전통에서 맑시스트 및 포스트포디즘의 논의와 연관된 조절이론적 입장²⁾으로 후퇴(retreat)한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

경제지리학의 수학적 모형들은 완전경쟁과 균형 그리고 수익불변을 가정한 상태에서 1960년대에 개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는 경제의 동학, 특히 그에게는 현재의 무역패턴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의 관심사는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리카아도의 무역이론을 재구성하는데 있었다. 무역을 새로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체증을 이해해야 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산업의 지리적 집중과 전문화 과정을 이해해야 했다. 왜냐하면, 수익체증을 떠받치는 시장, 기술 및 기타 외부효과들은 국제적인 또는 심지어 일국적이 아니라 지역 및 국지적인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집적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이다(Krugman, 1991b; 1993a). 우선 그의 신무역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시 그의 신경제지리학으로 논의를 옮겨가 보자.

1) 크루그만의 ‘신무역이론’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무역이론은 완전경쟁과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비이동성을 가정한다. 상이한 생산요소를 가진 국가는 상이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진 국가와 교역을 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가는 산업을 특화한다. 따라서 상이한 국가의 상대적인 생산요소는 국제무역 및 전문화의 중요한 기반인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유사한 생산요소를 가진 국가들 간에 유사한 상품들이 교환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산업 내(intraindustry)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수준이 수렴하고 있는 현재의 무역패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신무역이론이다 (Krugman, 1990). 그렇다고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비교우위론은 무역의 이점을 설명하는 일반적 원리이다. 따라서

2) 그는 조절이론을 데리다에게서 오염된 해체주의적 담론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의 비판적인 경제지리학적 연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서 거리낌없이 그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아마도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지적인 편식 때문인 것 같다.

국제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국가 경쟁력 개념은 잘못 설정된 것이고, 자유무역을 여전히 최선의 게임 룰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역이 제로섬게임을 수반하는 경쟁과정이라 아니라 상호편익을 수반하는 교환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예정조화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의 신무역이론의 맹점이 있다. 수익체증과 비교우위의 원리가 어느 정도 양립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가령, 일부 산업의 수익체증은 공간상에서 자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artin & Sunley, 1996, p.275). 그가 상정하는 경제현실은 모순으로 충만한 세계가 아니다.

산업 내 무역은 한 국가의 생산요소의 내재적인 차이보다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에 기반한 산업 전문화에 기대고 있다.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는 가정 대신에 불완전 경쟁과 수익체증이 현재 무역의 패턴을 설명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비교우위보다 규모의 경제 및 수익체증의 논리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면 생산물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생산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무역의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 패턴은 역사적으로 우연적이다. 특정한 산업의 특정 입지는 어느 정도 미결정적이고 역사적 상황에 의존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문화의 패턴이 나타나면 그 패턴은 누적적 인과에 의해 잠금된다(locked-in). 따라서 국가 간 무역의 특화와 무역패턴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 경쟁과 산업 내 무역이라는 조건하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패턴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리카아도적인 무역이론의 문제설정 하에서는 전략적인 무역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무역이론은 이와 반대이다. 국가가 규모의 외부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수출산업분야를 육성하여 비교우위를 의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루그만의 신무역이론은 지리적인 산업전문화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입지론의 아이디어를 수혈 받게 된다. 그는 불완전경쟁 및 수익체증의 모형을 입지론에서의 운송비용과 결합한다. 규모의 외부경제와 운송비용과의 상호작용이 특정지역으로의 산업집중과 중심-주변부의 형성을 설명한다(Krugman, 1991a). 생산 및 교통의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기업들은 한 장소로 집중하고 동시에 운송비용의 감소가 발생한다. 거리 마찰효과에 따

른 거래비용 때문에 각 개별 생산자는 시장수요가 크고 생산요소의 공급이 편리한 지역의 입지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개별기업들의 일반적인 입지 논리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운송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시장근접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생산은 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비용이 계속 고려되는 경우 생산과 수요 사이의 정의(positive) 환류, 즉 누적적 인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이 어느 지역에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역사적으로 우연적이다. 처음에 어찌됐건 이러한 행운을 거머쥔 지역은 중심부로 성장한다. 바로 이 논리가 19세기 미국 동북부 공업집적지의 형성을 설명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중심-주변부 모형이외에 그는 또한 도시체계의 성장을 공간적 자기조직화의 기하학적 표현으로서 모형화한다(Krugman, 1993c).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재화의 다양성 때문에 기업들은 판매시장을 찾기 때문에 도시에 집중한다는 세이 법칙의 공간적 해석이 그의 논지이다.

이러한 입지론에 기대고서 그는 규모가 큰 지역들이 국민국가보다 더 중요한 경제단위라고 주장한다(Krugman, 1993b). 그에 따르면, “외부경제의 중요성을 예증하는 경험적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활동 일반과 특정산업이 공간에 집적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ibid., p.173). 이러한 경제활동의 지리적 집적은 균형경제학의 부적실성을 예증하고 다수의 가능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형태는 역사와 우연적인 상황, 경로의존 그리고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의 지역우위는 전 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누적적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크루그만은 경제지리학을 경로의존성과 관련시킨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지역경제의 쇠퇴처럼 일정한 조건하에서 변화와 반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Krugman, 1991c).

2) 신경제지리학: 불완전 경쟁, 수익체증 그리고 외부성

크루그만의 입지론에 관한 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입지론 논의와 별 차별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논의가 신무역이론과 최근의 산업조직론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

가 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말하는 '새로움'이란 수익체증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불완전 경쟁시장 구조 하에서 최신의 경제 수학적 모형을 가지고 (Krugman, 1991a, p.4) 과거의 입지론을 재구성했다는 데 있다. 그의 수익 체증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샬(Marshall)과 챔벌린(Chamberlin)의 경쟁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Martin & Sunley, 1996, p.265; Sheppard, 2000).

마샬리안 전통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는 외부적이고 이는 사회적 분업의 전문화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완전경쟁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크루그만은 그의 저서 '지리(학)과 무역' (1991a)에서 산업의 지리적 집적의 원천을 마샬의 세 가지 외부경제에서 찾고 있다. 노동시장 풀의 형성(pooling), 전문적인 공급자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적 지식의 일출효과(spillovers)가 바로 그것이다. 크루그만은 기술적 외부효과는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간단히 처리하고 앞의 두 가지 외부효과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는 챔벌린안 세계에서 이러한 마샬리안 외부효과를 해석하려고 한다. 챔벌린안 모형은 차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유사한 기업들간의 독점적 경쟁의 세계이다. 각 기업은 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일정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다소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은 독점이윤을 제거하고 많은 독점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내 무역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이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마샬리안 세계와 달리 기업에 내부적이다. 기업들은 한 장소에 입지하고 산업 내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의 차별적인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향유할 수 있다(Krugman, 1989). 중간재와 부품의 생산, 즉 차별화의 범위가 넓고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에는 작은 그러한 시장에서 위의 논리는 적실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경우에 "챔벌린안 세계의 전문화와 무역의 패턴은 마샬리안 세계의 패턴과 닮게 된다"(Krugman, 1987, p.319).

크루그만은 이처럼 경제지리학의 논의에서 마샬리안 경쟁과 챔벌린안 경쟁의 세계를 모두 염두에 둔다. 따라서 그의 외부성에 관한 논의도 요즘 산업지구에 관한 지리학자의 논의에서처럼 일방적으로 마샬리안 외부효과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그가 기본적으로 불완전경쟁과 수익체증이라는 가정하에서 입지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술 및 금전적 외부효과라는 구분이 그의 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완전경쟁의 모형에서 기술적 외부효과는 시장이외의 방법으로 생산함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완전경쟁과 수익불변의 가정 하에서 시장에서의 구매와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외부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이 외부효과는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외부효과의 구분은 수익불변과 완전경쟁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불완전 경쟁과 수익체증의 조건하에서 다양한 시장규모 효과와 연관된 진정한 외부경제가 존재한다고 그는 언급한다(Krugman, 1993b, p.166).

지난 10여년 동안에 ... 불완전 경쟁과 수익체증 하에서, 가령, 한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제품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면-그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고-금전적 외부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이 잘 알려졌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 기업의 연구개발이 일반적인 지식의 풀로 일출 되는 것처럼 '실제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Krugman, 1991b, p.485).

그는 노동시장 풀과 공급자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은 마샬리안 외부효과를 시장규모효과의 예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규모의 외부 및 내부경제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규모의 경제가 기업에 외부적일지라도, 중간투입재 생산의 내부경제는 그것을 구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부경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Krugman, 1981, p. 151). 따라서 그의 주장은 국지적 외부경제를 가정할 필요가 없고 이는 시장규모 또는 시장잠재력 효과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적하려는 유인을 증가시킴으로써 규모의 내부경제는 생산의 지리적 집중을 강화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 북부의 제조업 벨트의 성장을 챔벌리언 기업들의 성장과 관련짓고 있다.

3. 크루그만의 입론에 대한 비판

크루그만의 경제지리학에 대한 논의는 경제지리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의 경제지리학자들은 공간분석 및 지역과학(regional science)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다섯 가지 전통'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논의가 이론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다(Johnston, 1992).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의 적실성이란 측면에서 거의 파산선고를 한 지역과학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그의 논의를 '신지역과학'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그러한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것 같다(Scott, 2000). 하지만 학술적인 담론생산의 유통이란 측면에서 경제학이 가진 권력 헤게모니, 즉 '(주류) 경제학의 사회과학의 식민화'(Fine, 1996)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Martin, 1999). 비판은 주로 그의 방법론과 협소한 공간개념에 집중되어 있다(Clark, 1998, Knox & Agnew, 1994, p.83; Martin & Sunley, 1996; Martin, 1999, Sheppard, 2000).

경제적 추론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의 가정에 기반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전제에 근거한 모형을 세우고 ... 역사에 근거해서 제도를 이해하거나 ... 또는 취향과 동기가 ...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가 없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 어떠한 근본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Krugman, 1995, p.77).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확실히 내가 항상 완전경쟁을 신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개인들이 (효용이나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균형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 모형들을 사용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할 수 있을 때이다(Krugman, 1996).

이처럼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균형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가 합리적인 개인의 행태로 환원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거시경제는 합리적인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의 '미시적인 토대'에 근거한다. 주류 경제학 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가계

의 미시적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와 거시적인 국민국가라는 두 가지 분석규모(scale)만을 상정한다. 지역경제는 국민국가단위의 거시경제 규모가 축소된 특수한 경우이거나 미시적 경제 행태의 총계로서 이해된다. 그 결과 크루그만이 내세우는 산업의 지리적 집중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분석단위가 어느 수준인지가 불명확하다. 외부효과가 기본적으로 국지적 또는 지역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하위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의 분석은 거의 일국 수준의 공간규모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Martin & Sunley, 1996, p.282). 이는 그가 제시하는 사례들이 공간적 규모가 방대한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혐의를 부추킨다.

그는 현실 경제문제의 본질을 재현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수학적 모형화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수학적 모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가정들은 중대한 문제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형의 결과가 부적절하다면 가정들은 수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의 어법에 따르면 수학적 기호를 상징하는 ‘그리스 문자 경제학(Greek letter economics)’만이 진정한 경제학인 것이다. 이는 사회적 세계가 물리적 생물학적 세계와 구조적으로 동형이라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논의는 역사를 가로지르는 ‘양식화된(stylised) 사실’을 정립하려고 한다(Clark, 1998). 동일한 논리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리적인 결과는 변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추동하는 과정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Knox & Agnew, 1994, p.83). 19세기 미국 제조업의 집적지 형성에 관한 역사가 동일하게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어디에서나 반복되며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크루그만은 완전균형만을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과거역사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다수의 균형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의존은, 표준적인 수익불변의 모형보다는 누적적 과정에 의해 추동되는 동적인 세계에 관한 칼도르(Kaldor)의 통찰력에 보다 근접한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입수 가능한 증거이다(Krugman, 1991a, pp.9-10).

하지만 이것을 사고할 때도 균형을 염두에 둔 것이지 불균형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익체증과 비교우위가 불협화음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불균등발전과 사회적 조정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Martin & Sunley, 1996, pp.267-268)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이내 적응할 것이라는 신고전적 세계로 그는 사라져 버린다. 칼 도르가 상정하는 세계는 불균형이 내파한 세계이다. 크루그만에게 역사가 중요하고 경로의존성이 강조되는 것은 다수의 균형이 존재하는, 즉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 다시 말해서 불완전 경쟁과 다수의 균형에 대한 수학적 모형화가 가능한 범위 한에서이다. 마침내 경제지리학이 경제학에서 연구할만한 주제가 된 것이다(Krugman, 1991a, p.4). 따라서 그의 역사는 현실의 시간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시간, 즉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게 된다(Martin, 1999, p. 76). 이러한 방법론을 고수함으로써 그는 비시장 관계에서 기원하는 외부효과는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논의에서 일단 배제한다. 그에게 복잡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수학적 해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차이와 특수성으로 뒤영킨 현실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다. 최신의 수학적 모형화의 기법이 등장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은 일단 '사회학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두 번째 비판은 그의 공간 및 지역에 대한 인식이다. 그의 공간은 기하학적인 은유에 불과한 개념적 장치이지 실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Martin, 1999;Sheppard, 2000). 그는 공간을 선, 점, 점의 패턴 등으로 개념화하고 운송비용이 거리에 따라 조락하는 함수로 이해한다. 지리학자에게 지역은 이러한 기하학적인 은유로 재현되는 단순한 개념적 영역이 아니라 실제 삶이 일어나고 영위되는, 불균등과 모순으로 가득 찬, 상이한 시공간계열로 배열되는 이질적 공간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총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다. 따라서 지역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변수가 경제적인 변수와 결합하여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갖게 된다. 경제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다른 지역이 흉내내기 힘든 지대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교통은 접근성을 생산하는 상품이지 크루그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외생적인 변수가 아니다.

크루그만은 경제적 과정이 공간규모(scale)－국지적, 지역적, 일국적 그리고 세계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이한 공간규모에 따라 외부성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가령, 그가 강조하는 금전적 외부효과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두드러지지만 정보 및 기술적 외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러한 규모의존적인 외부효과의 상호 작용-상이한 공간적 규모의 접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Martin, 1999, p.78). 왜 하필 ‘거기에’ 그것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우연으로 돌리고 있다. 그것은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축인 국지적인 사회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 구조가 행사하는 영향력과 그 역할에 대한 고려, 즉 ‘비시장관계의 사회경제학’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어 있다.

4. 정치경제학과 사회경제학의 만남: 상황적 합리성 (contextual rationality) 혹은 차이의 경제학을 향하여

크루그만의 신경제지리학은 ‘잊혀진 다섯 가지 경제지리학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하여 산업조직론의 최근의 경제수학적 모형화의 성과에 기대고서 수익체증과 불완전 경쟁 하에서 입지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다섯가지 전통 이외에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제지리학의 또 다른 전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최근의 제도주의적 사회경제학적 접근이다. 양자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세계는 모순과 갈등으로 충만하여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의 경제지리학과는 달리 불균형과 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인 속성으로 이해한다.

지리학 내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1960년대 말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경제지리학의 전통’을 전복하려는 비판적인 공간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지리(학)’을 비

판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몇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cott, 2000). 첫째가 하비(Harvey), 메세이(Massey), 스코트(Scott)와 같은 영미의 급진 지리학자들과 리피에츠(Lipietz)와 같은 프랑스의 급진 도시연구자들이 자본주의하에서 도시공간의 동학과 논리, 토지지대, 주택공급, 그리고 도시계획사이의 관련성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두번째 흐름은 블루스톤(Bluestone)과 해리슨(Harrison)의 연구로 상징되는 빈곤, 실업, 탈산업화, 지역경제의 쇠락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지리(학)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국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는 뮌헨이 제시한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의 패턴을 생산하는 메카니즘으로서 누적적 인과와 부등가 교환과 경제적 제국주의에 관한 분석과 일정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서구의 '지역경제의 부활'과 관련하여, 국지적 맥락(context)과 상황(contingency)에 방점을 두는, 즉 '다양한 산업세계'가 존재한다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접근이 다양한 지역을 연구하면서도 동일한 경제적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수형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라면 이것은 '복수형'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이다. 즉 지역은 상이한 시공간 계열의 축을 가지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 논의와 관련하여 어느 지역이나 통용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처방전(매뉴얼)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자산구조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Amin, 1999).

이러한 접근은 초창기에 유연적 전문화 학파, 캘리포니아 학파, 그레미(GREMI) 연구그룹,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그룹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Scott, 2000. 참조). 이들은 '새로운 산업세계의 분수령'으로서 신산업지구를 이룬 세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공간적 이정표로 이해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세 가지 유형의 신산업지구가 확인되었다. 제3이탈리아와 같은 장인적 산업지구, 실리콘 벨리와 같은 첨단산업지구, 그리고 런던과 같은 금융 비즈니스 지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업지구들은 상이한 시공간 계열의 동학을 가지고 작동한다. 이들은 '지역들의 세계'로서 경제의 다양성-차이의 경제학을 예증한다. 최근에 프랑스의 조절론과 쾨방시옹 경제학, 제도주의 및 진

화경제학, 경제사회학 등의 연구성과가 유입되면서 이들의 주장은 정교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지역 생산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거나(또는 저해하는) 비공식적인 문화, 관습, 그리고(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성, 둘째 사회적 조절의 제도가 국지적 노동시장의 형성 및 지역경제 운용에 미친 영향,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변화를 추동하는 동적인 학습과 혁신과정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이다(Scott,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는데 이는 크루그만의 연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Amin, 1999, pp.369-370). 우선, 비공식적인 학습과정에서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둘째, 암묵적인 지식과 과학 및 기술분야의 성과를 묶을 수 있는 조직환경 뿐만 아니라 규모와 관련된 거래비용절감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습의 다양한 과정과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성찰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추구하는 학습 네트워크와 신뢰와 호혜성에 바탕을 두고 점증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인 네트워크는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동학이 그것의 학습능력 또는 그것이 변화를 예측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파생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수익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맥락은 지역경제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Amin, 1999). 가령 시장효과가 관련된 규모의 경제는 범위의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하고 양자의 결합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역경제의 다양한 수익체증의 논리, 즉 지대창출의 메카니즘과 다양한 외부효과 사이의 접합에 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사실 지역경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지대창출의 메카니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실의 경제는 이런 측면을 더욱 더 뚜렷이 하고 있다. 크루그만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시장적 비시장적 외부효과들은 국지적 또는 지역적인 공간규모에서 가장 잘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그는 챔벌리안 경쟁 세계에서 마샬리안 외부효과를 검토하

면서 어떻게 지대가 창출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최근의 경제 지리학자들은 상이한 시공간적 계열에 따라 배열된 지역의 '제도적 심층(institutional thickness)'을, 비시장적 관계의 사회경제학을 검토함으로써 지대 창출의 원천을 밝혀 내고자 하였다. 시장효과와 비시장 외부효과의 접합지점이 상황적 합리성을 해부하는 통로이다. 경제지리학의 문제설정은 왜 바로 '거기에' 그러한 지역경제가 작동하는가이다. 크루그만의 논의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문제설정을 잘 드러내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또는 차이에 대한 강조는 일견 진보와 자율성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로의존이 상징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보수성을 담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지역경제에 대한 논의는 차이 및 공간 물신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크루그만의 경제지리학의 논의는 '경제학의 사회과학 식민화' 경향(Fine, 1997)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미시적인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어디 지역에서나 적용되는 지역경제의 메카니즘에 관한 보편 타당한 논리적 틀을 설정하고자 하는 야심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수학적 모형화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불완전경쟁과 수익체증 하에서 금전적 외부효과와 기술적 외부효과와 이분법적 논리지형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 문제는 비시장적 외부효과는 모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학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불균형의 경제세계를 인식을 하지만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는 그의 지적 독단이다. 이는 경제학은 순수히 경제학적 논의에 머물러야 한다는 분과학문의 폐쇄성을 일견 드러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학의 미개척 분야를 탐험함으로써 영토확장을 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 공유하는 방법론적 틀-수학적 모형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떠한 비판도 작업도 그저 무시해버리는 태도도 나타난다. 사실 그는 경제지리학의 최근 성과들을 아예 읽어볼 생각도 인용을 할 생각도 없다. 현재로서는 수학적

인 모형화가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마도 말장난에 지나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의 학제간 의사소통은 ‘귀머거리의 대화’(Martin, 1999, p.83)로 귀결된 가능성이 크다. 서로의 사고가 침투하고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문분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 지리학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경제이론’이 필요한가(역으로 경제학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경제지리학적 지식이 필요한가)?(Amin & Thrift, 2000). 기본적으로 경제학과 지리학 사이의 상호 건설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지리학자는 다양한 경제이론을 수용해 왔다. 문제는 경제학적 지식도 복수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적용이 되는 상황 의존적인 지식이다. 바로 크루그만의 논의와 그 비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는 바로 그가 강조하는 수익체증, 즉 지대창출의 메카니즘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제3이탈리아의 장인적인 산업지구, 런던의 금융 비즈니스 지구,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지구에서 시장적 외부효과와 비시장적 관계의 외부효과와 상호결합에 따라 그 지구의 역동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경제의 동학은 생산함수 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산요소를 부가하는 기술적인 경제적 현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도간의 경합을 통해 그것에 뿌리내리는 지리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junho.jeong@geography.oxford.ac.uk

참고문헌

- Amin, A., 1999,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 Amin, A. & Thrift, N., 2000, *What Kind of Economic Theory for What*

Kind of Economic Geography?, Antipode, 32 (1), 4-9.

- Clark, G. L., 1998, "Stylised Facts and Close Dialogue: Methodology in Economic Geograph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
- Fine, B., 1997, "The New Revolution in Economics," *Capital and Class*, no.61, Spring.
- Gans, J. S. & Shepherd, G. B., 1994, "How Are The Mighty Fallen: Rejected Classical Articles by Leading Economis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 Johnston, R. J., 1992, "Review of P. Krugman's Geography and Tra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 Knox, P. & Agnew, J(eds.), 1994, *The Geography of The World Economy*, London: Edward Arnold.
- Krugman, P., 1981, "Trade, Accumulation and Uneven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
- _____, 1987, "Increasing Return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Advance in Economic Theory*, Bewley, 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Economic Integration in Europe: Some Conceptual Issues,"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trade and Competition*, Jacquemin, A. & Sapir, A.(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Rethinking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1a, *Geography and Trad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1b,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 _____, 1991c, "History Versus Expect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 _____, 1993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Theory and Location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
- _____, 1993b, "The Current Case for Industrial Policy," in *Protectionism and World Welfare*, Salvatore, D.(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c, "On The Number and Location of Cities," *European Economic Review*, 37.
- _____, 1995, *Development, Geography and Economic Theory*,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6, "What Economists Can Learn from Evolutionary Theorists?," *paper presented to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 November.
- Martin, R., 1999, "The New 'Geographical Turn' in Economics: Some Critical Reflec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 Martin, R. & Sunley, D., 1996, "Paul Krugman's Geographical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 Critical Assessment," *Economic Geography*, 72.
- Samuelson, P., 1994, *Preface*, In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Krugman, P.(ed.), London: MIT Press, vii.
- Scott, A., 2000, "Economic Geography: The Great Half-century, Mimeo," *Department of Geography and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Sheppard, E., 2000, "Geography or Economics?: Contrasting Theories of Location, Spatial Pricing, Trade and Economic Dynamics," in *A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G. Clark, M. Gertler & M. A. Feldman(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